

## 實存의 人間像과 그 全人教育에의 示唆

시간강사 李 永 吉

### I. 序 論

#### 1. 研究의 意義

教育은 人間을 對象으로 人間이 하는 活動이다. 따라서 人間存在를 어떻게 보며 어떠한 人間으로 成長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教育의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先行하는 문제인 것이다. 급격히 발달된 산업사회, 人間の 전면적인 발달을 무시하고 人間을 획일주의로 이끌어가는 大衆社會와 매스컴(Mass communication), 거의 우상화된 물질숭배 사상은 人間을 本來의 위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소의 현상과 인간상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Jaspers는 「現代의 精神的 狀況」이라는 글에서 모든 것이 평균화, 기계화되어 本來적인 것은 은폐되고 人間은 個性을 잃어버린 채 마치 교환할 수 없는 기계의 부분품과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代替할 수 없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은 벌써 없어졌으며 社會는 기술적인 거창한 기계로 變하여 인간관계는 메마른 기계처럼 되어버렸다고 現代적인 위기를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자기를 되찾고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해나가는 實存의 人間像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現代教育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實存의 人間像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學校教育에 대한 비판, 즉 한국의 教育은 치열한 입시경쟁의 와중에서 學生의 內的 가능성과 個性·創造力을 무시한 채 성적위주로만 흘러가고 있으며, 學校教育은 쓸모없는 단편적 지식의 주입이며, 좀 더 차원높은 정신기능 함양에 실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태도 價値觀·信念의 形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學校教育은 이러한 비난에만 그칠 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없는 실정이다.<sup>1)</sup>

20 C에 들어와서 教育學은 社會的인 意味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 교육이 지향하는 바로서 다만 개인으로서의 人間性의 여러가지 요소를 전체적으로 調和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社會生活과 調和가 되는 점을 중시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全人을 形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두된 전인교육의 개념은 學校教育에 對한 구체적

<sup>1)</sup> 조용태, 실존주의에 있어서의 자유개념과 그 교육학적 시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5, pp.12~24.

인 방안 모색이 될 것이다.

이흥우는 實存主義는 人間實存의 狀況 그 자체를 문제삼는 철학이므로 教育에 어떤 분명한 방침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實存主義는 그 중심되는 對象이 人間이라는 點에서 教育學의 人間觀과 무관할 수 없게 되고 특히 教育學을 人間적인 面에서 탐구하는 教育哲學者들이 實存主義를 教育에 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人間實存에 있어서 非人間化의 요소를 제거하고 人間회복을 들고나온 실존주의의 人間觀을 통해 全人教育에 시사해 주는 것을 밝히고 學校教育의 새로운 方向 모색을 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인 것이다.

## 2. 研究問題 陳述

本 研究은 우선 諸 A)실존철학자의 人間像에 對한 견해를 통해 B)실존적 인간상을 분석하고 C)實存的 인간의 行動特性에 대해 논술하고, 實存的 人間像을 教育의 정상화 방안에도 도입시켜 나가 全人教育에의 지향을 방안 모색과 아울러 실존주의 인간상과 관련된 諸概念을 발견하여 실존주의 인간상이 全人教育에 주는 시사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實存哲學이 추구하는 人間像

### 1. 實存的 人間像에 對한 諸 見解

Platon에서 시작해서 Hegel에 이르는 모든 古典哲學은 전통적으로 ‘essence’ 문제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데 “人間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對해서 希臘 이래 계몽주의 시대와 독일의 觀念哲學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의 주류는 인간의 本質을 그의 理性 속에서 발견하였다.

즉, 인간은 理性的 動物이라는 것이 希臘철학으로부터 Scholar적인 전통을 거쳐 近代哲學에 이르기까지의 인간관이였다. 2차대전 이전 후에도 오랫동안 教育과 무관한 實存主義는 그 中心이 되는 對象이 人間이라는 點에서 教育學의 人間像과 무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sup>3)</sup>

### 2. 實存 哲學이 추구하는 人間像

實存的 인간상에 對해서는 크게 有神論과 無神論의 입장에서 구분한다. 有神論의 입장을 취한 실존철학자로서는 Kierkegaard, Jaspers, Marcel 등을 들 수 있는데 Jaspers는 Nietzsche의 뒤를 계승했으나 無神論의 입장을 취한 Nietzsche와는 달리 有神論의 입장을 취하며 無神論의 입장을 취한 철학자로서는 Nietzsche, Heidegger, Sartre를 들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양 입장을 代表하는 실존철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up>2)</sup> 李洪雨, 韓基彥, 教育課程探究, 서울: 박영사, 1980.

<sup>3)</sup> 曹街京, 실존철학, 서울: 박영사, 1972, p.194.

<sup>4)</sup> 박종홍, 철학개론, 서울: 박영사, 1968, pp.200 ~ 202.

## 1) 有神論的 立場

## a. Sören Kierkegaard

Kierkegaard는 철학적 사색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그 對象으로 삼는다. 인간의 意志와 希望을 부단히 진실과 긴장으로 몰아 넣어 참되려고 한<sup>5)</sup> 그는 우수와 不安과 공포와 절망에서 울며 希望과 환희에서 웃는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思索의 對象으로 한다.

Kierkegaard의 실존적인 인간은 神앞의 외로운 單獨者인 것으로 규정되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단을 통한 비약을 단행하는 사람만이 실존하는 인간이며, 이를 單獨者라고 규정한다. 그의 實存은 「神앞에 서는 單獨者」로서의 實存이다.<sup>6)</sup> 人間의 일상세계와 生活이 진실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大衆속에 묻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쉬운 點을 지적하고 인간의 本來의 실존은 이러한 非本來의인 속성을 떨쳐버리고 神 앞의 單獨者로서 서는 것이라고 한다.

## b. K. Jaspers

Jaspers는 現代의 精神의 狀況을 철저한 위기의식에서 보고 그의 실존적 인간상을 究明했다. 즉 모든 객관성은 애매하고 眞理는 회복할 수 없는 암흑 속으로 그리고 實體는 混迷 속에서 현실은 위장속으로 숨어버린 現代의 狀況 속에서 그는 實存을 찾았다. Kierkegaard에게서 주체성으로서의 실존을 물려 받았고, 실존이란 對象으로서의 인식과 分析이 불가능하여 다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想起하고 자각할 때만 실존은 존재한다<sup>7)</sup> 고 하였다.

결국 그의 실존적 인간상은 한계상황(Grenz-Situation)과의 관계에서 밝혀진다. 한계상황에 부딪친 인간실존이 허무감과 좌절을 느끼고 이를 통하여 초월자(神)에게 귀의할 때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Jaspers의 哲學은 초월의 哲學인 理由가 여기에 있다. 한계상황의 자각은 실존을 각성케 하는 根本的인 계기이며 실존의 초월자에 의해서 지속된 것이며 자신이 초월자에 귀의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할 때의 실존은 비로소 실존한다고 말한다. 고로 Jaspers의 실존적 인간상은 이 절박한 한계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부딪치는 한계상황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 속에서 生을 관철하는 本來의인 精神을 획득하려는 자각의 인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자각은 절대자와의 Communication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 c. Gabriel Marcel

Marcel은 獨自의인 有神論的 實存思想을 전개하였다. 개별적인 존재를 개별적으로 인지할 수록 存在自體에 접근해 나간다. 「나와 나의 身體」, 「나와 他人」, 「나와 世界」, 「나와 神의 관계」는 서로 人格的 관계이다 고로 “나는 세계의 化身이고 世界는 神의 化身이다”<sup>8)</sup> 인간의 실존도 이와같은 관계 속에서만 늘어난다. 즉 나와 너의 Communication과 공동참여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타나며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냐에 따라서 나는 存在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

<sup>5)</sup> 안병욱, 실존주의의 계보, 사상계 4월호, p.96.

<sup>6)</sup> Ott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이규호(역), 서울:배영사 1967, pp.13~14.

<sup>7)</sup> 박봉현, 실존철학의 이해, 서울:배영사, 1970, p.124.

<sup>8)</sup> 오천석, 교육철학 신강, 서울:교학사, 1979, pp.203~205.

다. 따라서 성실이 없는 곳에 존재도 있을 수 없다. Marcel 철학은 「참여의 哲學」이다. Communication을 위한 필요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때 참조하고자 하는 욕망에 연결되어 있다.<sup>9)</sup>

나의 절대적 성실과 헌신에서 神은 나에게, 나는 神에게 존재하게 된다.<sup>10)</sup> 나와 너와의 관계는 神과의 관계처럼 나는 너의 人格을 존중하지 않고는 나의 실존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Marcel의 실존은 「共同 참여에 誠實한 人間像」<sup>11)</sup> 이라고 볼 수 있다.

## 2) 無神論的 立場

### a. F. W. Nietzsche

Nietzsche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존적인 哲學의 싹을 그의 마음속에 키워 나갔다. 그는 Europe의 精神을 지배해온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를 否定하여 「Gott ist tot」<sup>12)</sup> 라고 선언하고 전통적인 기성가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가치의 수립을 기도했다. 그와같은 企圖는 인간을 中心으로 시작했으며 神 代身에 인간을 代置하여 인간이 초월해야 할 어떤 者로서 초인(Übermensch)을 제시했으며 이 超人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理想的인 인간상인 것이다. 인간성을 넘어서 者가 超人이며 그에게 있어서 자기초월을 위한 主體의 결단의 순간 순간은 자기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그의 저서 「Zarathustra」에서 보면 「Zarathustra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대에게 超人을 가르친다. 인간이란 초월해야 할 어떤 것이다」<sup>13)</sup> 라고 하였다. 결국 초인이란 인간적인 自由와 책임을 확보한 創造人이 되기 위하여 초월한 인간이다.

### b. Martin Heidegger

그에 의하면 人間은 세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계 안에 던져진 유한한 존재라고 하였다. 인간이란 특수한 존재를 「Da sein」라 부르고 그 존재방식을 실존이라 부른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유한한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시간성을 가지며 무상한 것이요. 인간세계도 무상한 것이어서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의 근본적인 本質이며 개인의 일상성에서 世人으로 전락되는 것도 이 불안 때문이다. Heidegger는 말하기를, 실존이란 죽음과 허무에서 오는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世人과 같이 통속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存在가 「無」라는 것과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존재의 無를 초월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sup>14)</sup> 그리하여 Heidegger의 實存的 인간상은 不安과 人生의 죽음에 대한 고뇌에서부터 본래적인 自己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겠다.<sup>14)</sup>

<sup>9)</sup> H. J. Blackham, Six Existential thinkers (New York : Harper & Sons publishers 1959), p.73.

<sup>10)</sup> 박종홍, 전계서, p.203.

<sup>11)</sup> 韓基淑外, 哲學概論,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 p.271.

<sup>12)</sup> 진두하, 서양 현대철학의 제유형, 서울: 진영사, 1975, p.123.

<sup>13)</sup> 김준섭, 현대철학, 서울: 정음사, 1969, p.98.

<sup>14)</sup> 한전숙, 전계서, p.173.

### c. Jean-Paul Sartre

그의 실존사상은 「實存은 本質에 앞선다」는 命題를 가지고 인간이란 人間- 般이라던가 人間의 理念과 같은 本質이 먼저 일어나서 人間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世界속에 우선 자기도 모르게 던져져 있는 存在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자기도 모르게 던져진 狀況 속에서 모든 현존의 자기인 것으로부터 자기가 아직 그 것이 아닌 것으로 向하여 자유로히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主體性이며 實存은 主體性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人間은 主體的인 自由에 의하여 가치선택을 할 수 있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人間行動의 모든 責任은 人間 自身에게 있다는 것이다.<sup>15)</sup>

고로 Sartre의 실존적 인간상은 특히 人間の 主體性을 강조하는, 主體的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人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實存哲學이 추구하는 人間像

앞에서 여러 철학자들의 人間像을 가지고 實存的인 人間性을 分析하고 또한 행동 특성을 찾아내서 그 行動特性을 종합할 때 실존적 인간상이 부각되고 그리하여 全人教育에의 시사 또한 기반에 기반을 두리라 생각한다.

### 1) 主體性으로서의 實存

Sartre가 말한 바와같이 「實存은 本質에 선행한다」는 것은 人間の 主體性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人間은 무엇보다도 먼저 存在하고 存在한 이후에야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무엇으로 된다는 것은 자기의 主體性에 의해서 自由로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의 견해처럼 人間이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면 그것은 人間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主體性을 상실하고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Jaspers는 이러한 일상적인 주체성 상실의 인간 존재를 실존없는 存在(Dasein Ohne Existenz)라고 말하였으며 Heidegger는 世人(Das-man)이라고 불렀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主體性을 상실하고 Jaspers가 말한대로 즉 「실존없는 現存」<sup>16)</sup>으로 그리고 Heidegger의 「世人」으로 전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主體的인 상실의 일반적인 존재 狀況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實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적인 자기의 결단이 요구될 때 그리고 결단을 내려 자유의사대로 行動할 때 人間の 主體性은 保證된 것이다. 이처럼 實存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人間の 모습이 아니라 日當的인 存在로부터 전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實存의 意味를 이렇게 볼 때 實存的인 人間이란 主體的인 自己覺醒人이라고 볼 수 있다.

<sup>15)</sup> 박봉현, 전계서, p.24.

<sup>16)</sup> 이규호(권), 현대인의 사상(2) 실존과 허무, 서울:태극출판사, 1974, p.24.

고로 實存은 主體性이며 主體性은 個個人이 本來的인 存在로 돌아갔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主體性은 人間 개개인에 있어서는 世俗的인 평균인 大衆의 狀態로부터의 一大轉換이며 그 전환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한 狀態인 것이다. 따라서 主體性은 個個人이 自由로울 때 생긴 것이며 自由가 없을 때는 主體性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實在의 本質은 主體性이며 이것이 또한 實存의 本質이다. 그러나 人間이 자유로운 만치 거기에는 責任이 뒤따른다. 책임이 없는 주체성은 放從이며, 反社會的이며 독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主體性은 항상 자유로움을 지니고 있으나 行動에 있어서 조심성과 진실성 그리고 성실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식에서 나온 行動이다.

## 2) 單獨者로서의 實存

실존철학자들은 人間の 實存의 양면성을 말한다. Jaspers 는 실존과 현존재로 구분하였고 현존재란 돌이킬 수 없는 日常的인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며 實存 本來的인 모습이다. Heidegger 는 실존을 本來性과 非本來性으로 區分하였다. 그는 非本來性을 Das mann 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世人이란 실존적인 자각이 없는 日常的인 人間の 모습이다. 다시말하여 他人이 행한대로 지껄이고 行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本來性은 人間이 非本質的인 狀態에서 本來的인 자기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人間 각자의 實存의 상태이다.<sup>17)</sup> 그런데 이와같은 양면성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不安의 情調(Stimmun) <sup>18)</sup> 로 말미암아서 양면성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不安의 情調는 人間の 本質로서 Kierkegaard 의 구원과 몰락의 기로에 선 고독과 절망, Nietzsche 의 否定에서 오는 허무와 절망, Jaspers 의 罪責意識과 투쟁에 대한 不安, Heidegger 의 죽음에 對한 不安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不安을 통하여 人間은 실존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이때에 人間은 고독한 단행자가 되어 外部世界와 斷切하고 자기와의 진지한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人間の 不安은 그들이 世上과 관계를 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고독한 單獨者의 狀態로 되는 것이며 이것이 단독자로서의 실존인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고독하게 되고 고독한 단독자로 돌아갔을 때 本來的인 自己를 드러내며 人間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3) 삶의 의지로서의 실존

人間은 외로운 단독자로서 좁은 自己의 世界에만 갇혀 있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독자로서의 실존은 극복되어야 하고 내일의 삶을 찾아 또다시 世界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 이규호는 인간의 실존이란 외로운 단독자로서 자기의 고독한 世界속으로 잠겨 버리면 삶의 의미가 상실된다 <sup>19)</sup> 고 말하였다. Bollnow는 지금까지의 실존철학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sup>17)</sup> 이규호 전계서, p.25.

<sup>18)</sup> 이규호, 상계서, p.26.

<sup>19)</sup> 이규호, 상계서, p.42.

위기의 표현이지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對한 방안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와같이 실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생활의 기반을 「새로운 안정」에 의지하여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새로운 안정이란 전통적인 실존 철학이 생각한 「불안의 기분」으로서의 고독 절망 고뇌 대신에 희망 신뢰 신념 등을 들어 이것이 인간 삶의 근원을 形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0)</sup> 人間은 世界的 存在이기 때문에 Nietzsche가 말한 바와같이 人間은 모험 반항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者는 또한 영원히 미래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Jaspers도 실존은 자기 창조이며 努力으로서의 자기와의 교섭에서 시작해서 타인과 함께 자기창조를 지도하기에 이른다고 하였다.<sup>21)</sup> 이와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실존은 고독에서부터 삶의 意志로 발로하여 世界와 만나 새로운 삶을 가지고 희망찬 출발을 하는 存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존은 미래를 向하고 자기창조의 원천이며 희망이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불안에 사로잡힌 고독한 현실의 世界에서 벗어나서 더 넓고 넓은 삶의 광장인 人間社會로 뛰어나와 자기본질 즉 정서를 함양하고 자기자신을 창조하며 사회를 설계하여야 한다.<sup>22)</sup>

#### 4) 만남으로서의 實存

實存哲學의 本來的인 태도는 숙명적으로 고독한 單獨者로서 「나」만을 강조하고 人間과 人間과의 만남을 外面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그리고 「너와 나」의 만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存在이다. Heidegger는 인간의 만남을 「本來的인 共存在」라고 하였고, Jaspers는 「실존적 공존재」라고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고독 속에서 실존이 성립되기는 하나 감혀져 버리면 실존은 필연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실존은 他실존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제로 들어감이 없이는 나 자신으로 될 수 없고 또 고독함이 없이는 교제로 들어갈 수 없다.<sup>23)</sup>

Jaspers의 이러한 견해는 실존의 개방성과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진실된 자기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된다.

Marcel은 근본적인 實存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열어 놓는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특히 인격과 인격의 개방된 생명의 交流와 共感에 依한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실존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Martin Buber에 依하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너와 내가 진실되게 만날때에 비로소 나의 실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나는 실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는 人格對 人格의 관계가 아니고 나-主體가 너-客體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對象的인 存在로 보기 때문이다.<sup>24)</sup> 따

<sup>20)</sup> 이규호, 삼계서, p.135.

<sup>21)</sup> 전두하, 서양철학의 제 유형, 서울:진영사, 1975, p.110.

<sup>22)</sup> 이규호, 진계서, p.46.

<sup>23)</sup> Otto F. Bollnow, *op. cit.*, pp.96 ~ 97.

<sup>24)</sup>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Ronald Geogor Smith, (Boston:Bealon press, 1955) p.26.

라서 人間이 非人間化 되는 것도 「나와 너」의 관계보다 「나와 그것」의 관계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

### 5) 誠實性으로서의 實存

Marcel 은 실존이란 人間이 진실에 對하여 誠實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誠實하기 위해서는 겸허하여야 하고 성실할 때에 일체의 오만과 위선에 對하여서 싸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人間性에의 誠實性이며 人間性에의 성실성 없이 단지 이기적인 欲望에서 反抗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바보 소행이라고 하였다. Heidegger 는 本來的인 자기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은 양심의 호소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sup>26)</sup> 즉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행위에 진실이 있고 또한 生活에 誠實性이 있게 된 것이다. Sartre 는 자기가 선택한 행동은 자신과 인류에 대해서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個人은 전인류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행동은 조심스럽고 또한 성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sup>26)</sup>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주체적인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결과로서 形成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기 결정과 선택에는 반드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은 성실성과 진실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3. 實存의 人間의 行動特性

實存의 人間은 각자 각자가 本然의 自己로 돌아가는 자각적 인간이라야 한다.

### 1) 실존적인 자각인

實存의 人間이란 Heidegger 의 말과같이 非本然的인 자기로부터 本然적인 자기로 本然的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근본적인 전환이야말로 참된 자기를 깨닫는 契機이다. 人間이란 자기도 모르게 이 世上에 던져져서 大衆과 더불어 일사대사 영겨져서 사는 存在가 되기 쉽다. 그러나 어떤 위기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을 위시한 여러가지 불안을 당함으로써 참된 자기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처럼 實存의 자각은 人間의 자각을 수반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더 의미있는 행동특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교육은 個人이 本來的인 자기를 재발견하고 자각적인 주체로 들어가게 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녔으며 이러한 자각인의 교육은 현대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量產的인 교육의 현실은 인간을 상품처럼 규격화 했고 나아가서는 非人間化의 현장을 교육과정에서 빚어 냈었다. 人間個人을 자각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現代教育의 커다란 課題중의 하나이다. 人間의 자각을 이룩할 수 없는 교육으로는 현대사회의 人間性의 상실 非人間化 非道德化 또한 人間의 소외현상은 극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

<sup>25)</sup> 박종홍, 전계서, p.234.

<sup>26)</sup> 박종홍, 상계서, p.235.



## 2) 主體의 思惟人

實存主義는 個別者, 單獨者로서의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과 決斷에 依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形成해 갈 때의 자기의 모습을 근본으로 삼는다. Sartre의 말과같이 「人間은 자기도 모르게 어처구니 없이 이 世上에 던져진 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決定해서 決定 짓는다.<sup>27)</sup> 그러나 現代는 인간을 그대로 劃一化하고 기계화된 文明속으로 던져 놓았다. 즉 人間의 主體性은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實存의 자각이 必要하며 또한 主體性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存在를 스스로 선택해 가는 主體的인 思惟者로서의 자유로운 행위 뿐이며 人間性은 이 실존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다. 실존주의에 있어서는 人間은 나면서부터 人間性을 지니고 온 것이 아니라 人間 스스로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人間의 主體的인 決斷에 의한 선택이라는 실존의 절대적 자유는 現代教育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28)</sup> Sartre의 말을 빌리면 人間은 그의 生活을 스스로 形成할 자유를 가진 것과 동시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책임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전인류를 위한 책임이 되어야 한다<sup>29)</sup> 고 하였다. 절대적자유 즉 全人(전인)이 누려야 할 자유는 소중한 것이며 現代教育 特히 지식위주의 교육은 전인의 자유로운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3) 誠實한 生活人

實存의 人間이란 외로운 단독자로부터 새로운 삶을 위해 세상사람과 必然的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세상사람과 만만에 의해서 참된생활 보다 넓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Buber도 참된 나는 만남을 통하여 발견 된다고 하였다. Heidegger에 依하면 本來的인 자기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람은 양심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sup>30)</sup> Marcel은 實存이란 인간성의 진실에 誠實하는 것이라고 하여 人間이 誠實한 때 만이 一體의 오만과 허위와 싸울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현대사회의 非人間的 위기 즉 人間 상실과 非人間化의 원인이 外部로 부터가 아니고 인간자신의 태도 마음가짐에서 온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도덕성의 상실과 양심의 회복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기계화된 사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非人間化의 組織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자신이 도덕성에 對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非人間化의 組織과 制度보다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人間이 非人間的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회복의 새로운 文化는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성실성은 人間의 本性을 제대로 나타내는 자세이다. 고로 현대 교육의 노력점은 바로 양심과 誠實性의 육성 발달에다 두어야 한다.

<sup>27)</sup> 박종홍, 상계서, p.235.

<sup>28)</sup> 이흥우, 한기연, 전계서, p.191.

<sup>29)</sup> 박봉현, 전계서, p.16.

<sup>30)</sup> 한전숙, 현대철학, 서울:정음사, 1974, pp.172 ~ 173.

<sup>31)</sup> 박봉현, 전계서, p.17.

인간이 매사에 성실하고 양심을 갖출 자세는 자기의 實存을 완전히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 Ⅲ. 全人教育

#### 1. 全人教育의 概念

全人教育이란 말의 一般的인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偏僻된 교육을 排除하고 性格教育과 情操教育등 人間性을 全面的 調和的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또한 전인교육의 개념을 教育思想史 側面에서 보면 古典의 개념으로서는 知·德·體의 조화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는 知·情·意·聖의 조화개념이며 현대적 表現으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균형발달로 개인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 창조적인 개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32)</sup>

이와같이 人間을 全人으로 心身一元論으로 보는 觀點에서 人間問題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다. 歷史的인 側面에서 볼 때 哲學에서 Democritus로부터 Comte에 이르는 물질주의(Materialistic)와 Plato로부터 Bergson에 이르는 理想主義(Idealistic)의 대립의 영향을 받아 教育 뿐만 아니라 기타 학문분야에서도 人間을 身體와 精神으로 분리하여 연구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物質主義나 理想主義적인 觀點은 人間을 이해하는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19C 말엽부터 자연주의(Naturalistic)에서 科學的인 方法에 對한 탐구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對한 경험적인 탐구를 함으로써(Pierce James Dewey) 오늘날에 있어서는 人間을 心身一元論的 觀點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예를 보면 의학에서 극단적인 실증주의(Positivistic)인 연구에 집착하여 외과의사는 인간기계를 보살피는 技師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실증주의에 反對하는 形而上學的(理想主義) 영향은 人間の 병리적 作用은 人性의 기본요소인 人間精神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들 병자를 同一說(Identity theory)로 보고 통합하여 심신의학(Psychosomaic medicine)으로 연구하여가는 方向으로 발달하여 가고 있음은 볼 수 있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全人으로 全體的인 형태로 보는 立場이 독일의 형태주의 심리학파에서 발전되고 있다. 이들은 전체는 부분의 集合 以上の 것이라고 말하여 分析的인 方法은 통합적인 가치를 상실케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場理論(Field theory)을 발전시킨 Lewin은 「人間行動은 個體와 환경의 相互作用의 所産」이라고 말하여 개체와 환경을 하나의 場으로 즉 전체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은 인간이해에 있어서 종래의 심신에 환경을 통합하는 데까지 全人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sup>33)</sup>

<sup>32)</sup> 權彝鍾, “전인교육 실효를 위한 방안”, 私學(9월호), 1981, p.23.

<sup>33)</sup>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1980, pp.37 ~ 40.

이들 교육의 주변학문의 발전은 교육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오늘날 교육학에서 人間性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人間은 社會의 存在로서 情緒的 知的 社會的 통일체라고 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教育目的 설정이나 교육내용 선정조직과 실천면에 있어서도 그 국가사회의 必要에 따라 전인교육을 위한 方向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分析하여 볼 때 전인교육은 현대교육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全人教育의 阻害要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교육방향을 전인교육 실시에 두며 또한 이의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全人教育에 對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點이 지적되고 있다.

社會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비판을 속히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 학교 교육이 社會에 對하여 責任을 다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現代教育에서 全人教育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면 학교교육의 주요과제가 知識教育을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點이라고 보겠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록 20세기 초부터 새교육 운동이 일어나 아동중심교육, 生活中心교육, 地域사회교육으로 발달해 왔으나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지식교육이 강조되어 왔고 한편 1950年代 이후 교육 즉 국방이라는 時代的 요청에 따라 종래의 생활적응교육에서 지성계발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사조가 변천함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情意 心身운동적 행동발달을 위한 교육이 소홀히 되어 가게 된 데 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학교교육에서 지식교육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정의적인 면은 勿論 심신운동적인 능력도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論說되고 이에 따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例를 들면 지적인 교수학적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함은 물론 개인의 정의적 요인은 흥미 동기나 자아개념이나 심신운동적 요인인 건강이나 숙련된 기능을 고려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이 일반적으로 論議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교육이 전인교육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론이나 사조에 依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교육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교육실제면이 이르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실제면은 학교교육환경을 이루고 있는 학생, 교사 교과 교수자로서 시설의 부적절성을 들 수 있다. 그 예는 우리의 주변에서 교수학습과정을 연상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연상되는 장면은 조용한 교실에서 50名 정도의 학생이 講義를 하는 교사의 설명을 교과서를 펴놓고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학생의 모습이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이와같은 교수-학습과정을 통하여 지성 인격 숙련된 운동능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너무나 단조롭고 조잡하고 미숙한 교육전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sup>34)</sup>

그러므로 우리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적교육에서 지식습득이나 이해가 전부가 아니고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는 고등정신기능을 기르고 情愜的인 교육에서 外部의 사건이나 자극은 감수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태도나 가치관을 形成하여 人格을 통합하여 가고 심신운동적인 면에서 힘 속도 추진력 정확성 조화와 유연성을 기를 뿐 아니라 숙련된 신체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둘째로 현대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일반사회의 교육에 對한 통념에서 살펴보면 교육의 근본목적은 개인의 出世의 수단이나 개인의 이익추구에 두고 있는 點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만은 아니다. Garden, J.W.(1964)는 그의 著書 「교육의 우수성과 평등」에서 자유의 적은 개인의 이익추구 나태 무질서라고 지적하고 교육의 숭고한 目的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헌신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35)</sup> 또한 독일의 Flitner는 언제나 교육의 시초는 전인적이어야 하며 전인교육이 튼튼한 데서 무한한 능력인 (一般 전문 특수직업)이 배출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였고 Poggler는 전체의 生活世界안에서 궁극적인 교육목적은 전인교육이다라고 정의하면서 현대산업 공업사회는 교육목적 면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6)</sup>

우리나라 사회에 歪曲된 교육목적이 전통적으로 뿌리깊게 보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예를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 중등교육 담당자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의해 학생의 진로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일컬어지는 소위 一流學校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왜 學父母나 教師나 학생이 一流學校 명에 걸려 슬퍼하고 낙담해야 하느냐는 바로 그 문제의 배후에 숨어있는 왜곡된 가치 즉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一流學校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라 본다. 勿論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시설이나 교수진이 좋고 우수한 학생이 모이는 학교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의 장래 능력 적성 또는 가정형편이나 기타 요인등을 무시하고 희망만을 중시하는 생각과 학생자신의 未來의 모든 문제를 일류학교라는 外的條件이 해결하여 준다고 믿는 사실 人間의 가치는 개인이 평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계발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도외시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들 歪曲된 가치 즉 주정적 특정적 편협된 가치를 合理的 민주적 보편적 가치로 바꾸는일이 없는 우리의 교육이 學生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즉 전인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본다 셋째, 현대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은 상급학교의 입시제도에 모순이 있어 하급 학교에서 지식위주의 교육을 하게 하는 點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평가에서 상급학교의 입시제도는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sup>34)</sup> 李鍾昇, “전인교육의 이상과 목표”, 교육연구(9월호), 1981, p.42.

<sup>35)</sup> 권이중, 전계서, p.26.

<sup>36)</sup>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계서, p.26.

을 준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日常生活에서 중등학교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중등교육은 한 마디로 지식 암기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과외위주의 교육이 그 全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데 대한 책임은 대학의 입시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바가 크다. 대학입시제도가 지식위주의 평가를 함으로써 고등학교는 勿論 중학교까지도 지식 암기위주교육을 주로 하게 되고 人格이나 건강 신체적 능력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본다.

### 3. 全人教育의 必要性

전인교육은 어느 한편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이고 人間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길러내도록 힘쓰는 교육이 전인교육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먼 절름발이 교육이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37)</sup>

첫째,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요즈음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찾게 된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막론하고 모두가 지식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더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입시를 위주한 교육으로 전략해 버렸고 교육의 成果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입시의 성과를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편중의 교육에 對한 개탄과 同時에 反作用으로 인간교육을 부르짖고 되었으며 전인교육의 필요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學校教育이 지식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정서 가치 도덕 등을 취급하는 정의의 교육은 위축되고 말았다. 知的인 교육은 勿論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식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情意의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도외시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온전한 인간을 육성하려면 전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전인교육의 필요는 사회가 분화되고 학교교육이 전문화되어 가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식이 팽창되어 감에 따라 직업의 세계 학문의 세계는 더욱 전문화되어 나간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 알맞도록 어느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특정분야에 한정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만 치우치다 보면 자연히 성숙한 人格者로서 갖추어야 할 다른 요소들을 결여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좋은 例로서 운동선수 기능인들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각자 자기 분야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sup>37)</sup> 洪雄善, “전인교육의 이념 고찰”, 私學(9월호), 1981, pp.28 ~ 29.

지나쳐서 다른 인간교육이 결여된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허다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운동선수나 기능인에게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도 점점 전문화의 경향은 심해져서 대학생들이 마땅히 구비해야 할 기초교양이 저하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교육이 전문화되어 갈수록 전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세째, 점차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不條理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또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 개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빚어지는 온갖 부적응행동 가치관의 혼란 목적의식의 결여 인간성의 상실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도덕성의 추락을 염려하기도 한다. 물질만능의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가고 쾌락추구의 심리가 만연되어 가는 사회현실에서 갖가지 부조리 비행 퇴폐행위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안으로서 전인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Ⅳ. 實存의 人間像의 全人教育에의 示唆

##### 1. 實存의 人間像과 관련된 諸 概念

실존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며 그 존엄성을 주장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린다. 자유와 책임이 따르지 않은 주체성은 방종이라고 하여 주체성 실존은 자유와 책임이 실존주의 인간관에 관련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불안의 정조는 단독자로서의 실존 삶의 의지의 발로는 창조를 통하여 本來的 共存在로서의 人間의 만남 本來的인 자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誠實性의 表現인 양심 그리고 선택등은 인간상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실존적 인간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유와 책임 불안 만남 선택 창조 성실성의 表現인 양심 등이 부각된다.

##### 2. 全人教育에의 示唆

실존주의 人間像이 전인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실존주의 人間像과 관련된 諸 개념 즉 자유 책임 불안 창조 양심 만남 선택 등을 선택은 자아실현과 불안과 만남은 人間性 創造는 정서 또한 실존주의 자유의 驅使가 全人이라는 點에서 人間의 전면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지식위주의 교육과 관련지었다.

###### 1) 선택과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Guide나 표준이 없이 단지 선택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sup>38)</sup> 따라서 실존주의 교육자는 선택하는 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9)</sup> 실제로 선택을 해보지 않고는 선택하

<sup>38)</sup> George F. Kneller, *Existentialism and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8), p.92.

<sup>39)</sup> Morris, *Philosophy and the American School*, (Boston: Mifflin Co, 1961) p.401.

는 것을 잘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실존적 인간은 매 순간마다 現在의 자아를 초월해서 現在이상의 것이 되는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실존주의 교육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신이 선택하여 또 그 선택의 결과에 對해서 責任을 지도록 장려해야 한다.<sup>40)</sup>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숙한 人間을 만드는 것이다. 성숙한 人間이란 자아실현된 인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대체로 合意가 이루어진 것 같다.<sup>41)</sup> 교육은 가장 훌륭한 가능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지도록 人間精神과 性品을 발달시키도록 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교과나 과제를 강요한다든가 그들의 전면적인 발달을 편협한 방법에 成文化 한다거나, 또 그 以前에 적당하다는 관념의 근거에서 生活과 學習에 對한 그들의 個我的 反應을 억제한다는 것은 선택의 참된 자유로부터 그들을 절연시키는 것이 되어 자아의 全域—知·情·意—에 걸친 아동 학생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실존주의 人間像에 기초를 둔 교육의 目標은 개인이 살고 있는 狀況속에서 자아전부를 실현하고 스스로를 啓發하는 데 있다.<sup>42)</sup>

## 2) 創造와 情緒

教育과 人間形成 人間形成과 정서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으며 特히 급격한 産業化로, Fromm이 지적한대로 「기술사회」, 「조직속의 人間」 직업을 위한 「기술교육훈련」만을 시행하기 쉬운 學校教育 과다한 입시경쟁속에서 지식위주로만 흘러가는 우리나라 교육을 고려할 때 정서교육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實存主義 學校는 人間の 非理性的인 自我 즉 美的 도덕적 정서적 自我가 科學的 理性的 自我보다 훨씬 더 현저한 곳이다. 실존주의 人間像은 人間の 정서적인 面을 발달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사랑하고 감상하며 (appreciate) 모든 世界에 대하여 情緒的으로 反應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43)</sup> 오늘날 學校가 학습자의 注意를 객관적 자료에만 集中시키는데 反해 실존주의는 生成되고 있는 現象 즉 世界的 變化에 對한 學生의 反應을 취급하는 것이다. 삶의 의지의 발로인 創造는 정서적 자유를 요한다.<sup>44)</sup> 이것은 Fromm이 말한대로 創造的 思考는 우리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본질을 창조할 수 있도록 교사는 너무 많이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안되며 너무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망라하지 말 것이며 餘白을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가 너무 직업준비교육에 그리고 우리나라 中等教育은 입시준비 교육에 무비판적으로 굴복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 교육은 직업인을 위한 훈련이나 점수를 잘 딸수 있는 경쟁인을 기르는데 제한된 교육이 아니라 정서·감정·창조성과 보다 깊은 人生의 意味에 호소될 수 있는 교재와 方法에 効果적으로 더욱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가 부과하는 모든 규율과 표준에 적합하는 人間으로서가 아니라 이로부터 독립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人間이 요청된다<sup>45)</sup> 고 하겠다.

<sup>40)</sup> 권이중, 전계서, p.25.

<sup>41)</sup> 조용태, 전계문, p.56.

<sup>42)</sup> 오천석, 전계서, p.114.

<sup>43)</sup> George, F. Kneller, *op. cit.*, p.61.

<sup>44)</sup> 조용태, 전계문, p.89.

<sup>45)</sup> 오천석, 전계서, p.112.

## 3) 만남과 사회적 발달

여기서는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教師와 學生間的 關係가 社會生活에 必要한 사회성의 발달 측면을 이야기 하려 한다. 人間性的 상실의 기본적인 원인은 人間關係의 非人格的인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우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人間的이고 人格的인 만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부모의 관계가 단순히 知識을 주고 받고 制度的으로만 맺어진 피상적인 人間關係이어서는 안되겠다. 서로간에 感情이 교류되는 情的이며 심층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Bollnow가 지적한대로 진정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만남이다.<sup>46)</sup>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I-thou의 관계」가 되어야지 「I-it」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Jaspers는 나는 실제로 들어감이 없이는 나자신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교제로 또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사회성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學校教育에 있어서도 學生과 教師間的 원만한 人間關係 뿐만 아니라 社會生活的 對人關係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人間の 不安은 그들이 世上과 人間關係를 끊고 고독한 단독자의 상태로 되는 것이다. 人間은 不安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고독하게 되고 本來的인 자기를 드러내며 人間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人間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강요 당하지 않는 存在이다. 그에게는 代理行爲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間自身이 점점 非人間化 되어가는 이 時代에 人間性을 회복하고 성실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人間性教育이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 4) 自由와 知識위주교육

지식위주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많은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은 단지 가설적인 것이지 지식 그 자체가 決定的인 것은 아니다. 오천석은 知識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개발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교과과정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물의 世界가 아니라 사람(person)의 世界로 存在의 의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자신안에 있으므로 外界에 對한 知識은 자신의 本性을 이해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이 처해있는 狀況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sup>47)</sup> 라고 하였다. 실존주의 知識이나 眞理는 實存的인 人間에게 관여될 때 비로서 意味가 있는 것이며 知識의 타당성도 그것이 學生個我에게 지니는 價値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Kneller는 “實存主義의 知識은 객관적이다. 知識은 人間이다. 그 知識은 그의 生活中에 그가 채택한 경험과 프로젝트의 結果로서 個我的 의식과 感情속에 存在하는 것으로 構成되고 또 거기서 근원이 되는 것이다<sup>48)</sup>”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個我が 선택한 知識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實存主義 認識論은 個個人이 그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도 주체성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선택됨으로써 그에게 타당성이 있다는 실존

<sup>46)</sup> Otto. F. Bollnow, *op. cit.*, p.136.

<sup>47)</sup> 오천석, 전게서, p.114.

<sup>48)</sup> George F. Kneller, *op. cit.*, p.68.



주의 교육은 지식을 권위자인 교사가 一方的으로 學生에게만 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전통주의 敎育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知識위주의 敎育이 아닌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學生에게 타당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分析과악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선택 교과를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또한 實存主義는 知識위주의 敎育과 함께 오늘날의 敎育이 大量敎育 集團敎育에서 오기쉬운 교육의 확일성과 人間의 社會化를 강조한 데서 오는 지나친 적응주의 때문에 개성과 독자성이 없는 비슷비슷한 人間을 길러내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加하고 있다. Morris가 지적한대로 學生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배운 것을 단순히 받아 외우기만 하는 기계적인 암기학습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또한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재나 요목적인 지식을 그 자체의 目的으로 또한 학생의 장차의 직업이나 생애의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교육을 계속 함으로써 全人으로서의 人間形成을 방해하는 교육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 V. 要約 및 結論

이 研究는 人間의 全人格的인 變容을 강조하고 오늘날의 지나치게 기계화된 교육방법 全人的 造化적인 발달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敎育의 과정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자 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존철학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人間像을 통하여 전인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보는데 있다. 실존주의는 敎育을 否定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실존주의야말로 眞情한 敎育을 바라고 있다고 하겠다. 실존적 인간상은 조직이나 기계의 부분품이 되어 盲目的으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고 유한한 人生의 現在의 순간의 경험이 개개인의 귀중한 독자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無意味한 行動을 취하는 現代人의 모습에서 벗어나 主體性 있고 독자성 있는 全體的인 인간의 발달을 目標 삼아 人間本來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길을 자각시키는 것이 實存的인 인간상이다.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실존적 인간상 즉, 주체성으로서의 실존, 단행자로서의 실존 삶의 意志로서의 실존 만남으로서의 실존, 誠實性的 實存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인교육에의 目的設定에 있어서 基本이 될 것이다.

2) 人間의 行動特性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유 책임 창조 양심 만남 선택과 같은 비지속적인 교육의 실체가 중시되어야 하고 교육의 실체에 지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을 기하는 교육의 실체가 요구된다.

3)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人間性的 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교과서중심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을 人間중심의 교육, 문제해결중심의 교육으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5) 도의 교육이라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테두리에서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인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諸要素의 총체를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공평하게 육성하는 全人的 人間을 교육하고 인간성에의 신뢰와 教育可能性을 믿고 인간교육을 志同하는 全人教育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오천석, 교육철학신강, 서울:교학사, (1979).
2. 박종홍, 철학개론, 서울:박영사, (1968).
3. 전두하, 서양 현대철학의 제유형, 서울:진영사, (1975).
4. 한전숙 외, 철학개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5. 김준섭, 현대철학, 서울:정음사, (1969).
6. 조가경, 실존철학, 서울:박영사, (1972).
7. 이규호(역), 실존철학과 교육학, 서울:배영사, (1967).
8. 박봉현, 실존철학의 이해, 서울:배영사, (1970).
9. 이규호(편), 실존과 허무, 서울:태극출판사, (1974).
10. 이종승, “전인교육의 이상과 목표”, 교육연구(9월호), (1981).
11. 권이중, “전인교육 실효를 위한 방안”, 사학(9월호), (1981).
12. Nash Paul, *Authority and Freedom in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ZnC,(1966).
13. Kaufmann. Walter, *Existentialism from Dostoevsky to Sartre*, New York ; Mertian Book ZnC, (1956).
14. Kneller, George F, *Existentialism and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ZnC,(1958).
15. Morris, *Existentialism in Education*, New York ; Harper and Row,(1966).
16. Martin Buber, *I and Thou*, New York : Charles Seribner & Sons,(1972).
17. Mitchell Bedford, *Existentialism and Creativity*,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1972).

**The Human Image of Existenti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Whole Person Education**

**Lee Young Gil**

*Part-time lecturer*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human image of existenti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whole person education.

It is said that existentialism makes denial of the education but paradoxically speaking, existentialism seeks for the true education. An educator who follows the existentialist orientation will emphasize deep personal reflection on one's commitment and choices. One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an inner-directed and authentic person, an authentic person is one who is free and aware of his freedo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existentialism are many.

It is designed to educate in us a sense of self awareness and to contribute to our authenticity as human beings. The school is a place where individuals can meet to pursue dialog and discussion about their own lives.

From the analysis of the human image of existentialism,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The human image of existentialism, so to speak, existence as a decisive actor, existence as a free will, existence as an encounter, existence as a faithfulness will be a foundation of educational purpose making of the whole person education.
2. To educate the humanistic behavior, freedom, responsibility and encounter are important.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development are important in the field of education.
3. To recover the loss of humanity, humanistic curriculum is demanded.
4. The human-centered education and problem-solving learning are demanded.
5. Moral education must be considered within the limits of human interaction.